

적자에도 직원 연봉 올리는 광주 공기업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DJ센터 최근 5년간 운영 분석
인건비 비중 예산의 절반 넘어 ... 운영구조·임금체계 혁신 시급

광주 공기업들이 당기순이익, 매출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원 연봉을 대폭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기업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공기업의 운영 구조 및 임금 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지역 공기업 4곳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건비 비중' 및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공기업은 기업의 매출, 당기순이익 등과는 관계없이 직원 평균연봉,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을 대

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한 공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다른 공기업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직원 연봉만은 높였다.

광주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1882억7800만여원이던 매출 규모가 5년만인 2017년 797억68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서 매출이 줄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3년 202억2000만여원에서 5년 뒤 163억9000만여원으로 줄었다.

반면, 2014년 4.14%에 불과하던 인건비 비중은 2017년 8.56%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3년 13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1574만 원이었던 초임은 2017년(15명) 3072만원으로 올랐다. 직원 평균 연봉 역시 2013년 5243만여원에서 2017년 6339만여원이 됐다. 5년간 1090만원이 오른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지난 2014년 39.5%에서 2017년 56.4%로 절반을 넘어섰다. 임직원 수와 임금이 매출에 비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광주시로부터 지난 2014년 398억여원을, 2017년 453억원을 지원받았다. 현재로 직원 임금을 높여주고 있는 셈이다. 직원 평균 연봉은 2013년 5061만여원에서 6086만여원으로, 5년간 1025만원이 올랐다. 임원 평균 연봉은 8809만여원에서 9798만여원으로, 같은 기간 989만원이 상승했다. 신규채용

규모도 지난 2013년 15명에서 2017년 2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초임도 2664만여원에서 2951만여원으로 올랐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역시 인건비 비중이 지난 2013년 14.85%에서 2017년 24.63%로, 10% 가까이 증가했다. 임직원수가 44명에서 117명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2013년 13억원, 2017년 17억여원 등 감가상각비로 인해 만성적자 구조이면서도 직원 평균 임금은 2013년 4461만여원에서 2016년 5085만여원으로 상승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직원 수를 줄이는 대신 평균임금을 높였다. 2014년 388명이던 임직원수가 2017년 353명으로 줄었고, 평균 임금은 4541만여원에서 5598만여원으로 뛰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최저시급 8350원

노동계 '속도조절' 반발 ...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나설 것"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2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끝내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680원)과 공익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으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조절로 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에 준수하지 않는 '모라토리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 제기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제심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민들의 숲 물놀이장 인파 한 낮의 기온이 36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진 15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회의장 문희상, 부의장 주승용·이주영 선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6선 문희상 의원, 부의장에 바른미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등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 갈 국회의장단을 확정했다. 〈관련 인터뷰 3면〉
문 의장은 이날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투표 수 275표 중 259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주 부의장은 재석 254명 중 246표, 이 부의장은 재석 267명 중 259표를 각각 얻었다. 이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과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문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정치인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역사의 고비마다 나

섰던 국민이 선거와 혁명 통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민생입법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첫 번째로 야당 탓을 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협상 태도를 갖추고 적대적 대결이 아닌 경쟁적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의회주의를 만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낮엔 찜통더위 밤엔 열대야 ... "소나기라도 내렸으면"

광주·전남지역에 옛새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까지는 폭염의 기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는 데다 열대야 현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찜통더위가

예상된다. 〈관련 기사 7·8면〉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광주·전남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

어질 전망이다"고 15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상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대기 상·하층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불안정이 없어 소나기

도 당분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에 더위를 식힐 만한 비소식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일보

광주 사립고교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대가성·내부공모 등 의혹 밝혀야 ▶6면
민선 7기 구상 : 김종식 목표시장
-평화·경제·관광 목표시대 열겠다 ▶11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식습관 바로잡고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VITALBEAUTIE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건강기능식품
녹차추출물, 비타민 C
50.4g [560mg X 90정]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 습관도 시작해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